



## 제2기

# 통합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농협 개혁 운동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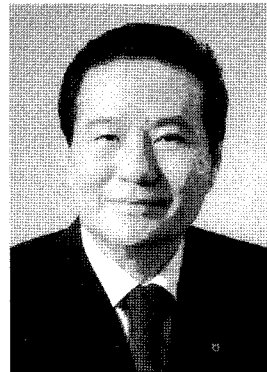
### 제2기 통합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전망과 의의

오는 25일 전국 1,332명의 조합장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될 제2기 통합 농협중앙회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7일 현재, 정대근 현 농협중앙회장과 이상필 경북 점촌농협 조합장이 17일 마감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격적인 출마 선언으로 주목받았던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서필상 정책실장은, 17일 등록 마감시한까지 조합장 50명의 동의 서명을 받지 못해 피선거권을 얻지 못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 최선영 전 의원 등의 각계 인사들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결국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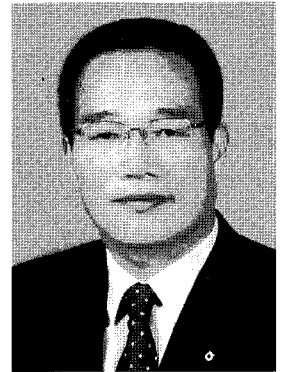
농업계는 이번 선거를 통해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축협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제2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한농연·한국농어민신문 공

동 주최 제2기 통합농협중앙회 발전을 위한 농협중앙회장의 역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 조직으로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참석자들은 “2000년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 등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러한 개혁 부진의 원인은 바로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축협의 직무·업무 형태가



정대근 후보



이상필 후보

5월 25일로 예정된 제2기 통합 농협중앙회장 선거, 6월의 제17대 국회 개원, 올 겨울부터 시작될 직선 4기 조합장 선거 등 농협 개혁 운동의 주변 여건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해 가을부터 올봄까지 이어진 경북·경기·강원 지역의 농협 개혁운동은, 농민조합원 중심의 농협 개혁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지난 4월 한농연중앙연합회의 시군회장 교육을 통해 각 시군회장들은 한농연중앙연합회

가 농협 개혁운동에 보다 더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홍수, 강기갑, 현애자 의원 등 농민운동가 출신 의원 3명이 국회에 입성하여, 농협 개혁 운동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월간 한농연 5월호에서는, 급변하는 농협 개혁 운동의 여건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한농연 회원들의 실천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회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한국농어민신문 5월 20일자 기사 참조).

제2기 통합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농협중앙회와 회원농축협의 근본적인 개혁 과제 실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축협을 경제사업 중심의 조직·인력구조로 조속히 개편하여, 농민조합원들의 농축산물 판매를 힘있게 지원할 수 있는 실무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한농연의 농협 개혁 요구사항

한농연은 작년 발표한 농협 개혁 20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작성하였다. 한농연은 이 내용을 지난 17일의 농협중앙회장 선거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한농연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요구사항 전문을 내려받으면 된다.

####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1. 주요 품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농축산물 계약재배 30% 확충을 통해 농업협동조합 중심의 농축산물 수급조절
2.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대한 집중 예산 배정으로 산지시장 장악
3. 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제 도입
4.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개편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5. 시군금고 평잔(시군구 금고 : 14조 5천억원)의 1% 지역 환원
6. 무이자 자금의 점진적 폐지
7. 전상무의 2년 계약 연봉제 도입 및 회원조합 임직원 급여체계 개선
8. 핵심 작목반 집중 육성
9. 지도금융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
10. 회원조합장을 비상임체제로 전환

특히 주요 품목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농축산물의 수급 조절은 한국 농협 및 농축산물 유통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례로, 일본 농업협동조합(JA)의 경제사업연합회는, 전국 도매시장 및 자체 유통망에 대한 수급 정보를 수집한다. 각 지역농축협에서도 조합 권역 내의 농축산물 식부·유통 현황을 매일 정리·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은 농협의 정확한 수급 계획 속에서 유통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산지유통센터에 자신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그 이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일본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여 정확히 정산해 주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및 시군 공금고의 회원농축협 환원 문제는 농협법 뿐만 아니라 은행법 및 예산회계법의 전면 개정이 있어야만 추진 가능한 어려운 과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시군 공금고 평잔의 1%(약 14조 5천억원으로 추산)를 지역 농축협에 환원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 농축협 및 사업연합 등을 위주로, 대형 산지유통센터·RPC 현대화 등 낙후된 산지 유통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농작업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농민 조합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회원조합으로 지원되는 각종 무이자 자금은 원칙 없이 배분되어, 회원농축협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무이자 지원 자금이 실제 지역에 배분되지 않은 채, 지역농축협들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해 이자 수익만 지역에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

로 정작 필요한 사업용 자금으로 전혀 쓰이지 못하고, 농축협의 경영 부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농민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농축협의 경영 개선 및 사업 추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현행 무이자 자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시군지부 및 회원농축협의 전산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의 전산 통합도 2005년 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조합원의 농가소득 및 농축산물 유통 시장 여건을 적절히 고려한 지도금융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선, 각종 상호금융과 정책자금의 상환일정을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금융상 불이익 발생 사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회원농축협들이 임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융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연체 이자 등의 수입만 챙겨간다는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협 내 통합전산망을 활용해 지도금융 프로그램을 조속하게 개발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결합을 높여야 한다. 이로써 각종 농업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의 자산, 부채, 소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도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회원농축협의 임직원들의 농업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농축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 조합원 지도금융 교육을 조속히 실시해, 신용담당 임직원들의 지도금융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농연 농협 개혁 자료집, 이렇게 활용하라

한농연은 5월 중순 농협개혁 완벽 가이드 - 농협개혁, 이렇게 하라 자료집 2,200부를 제작하여 각 시군·읍면동회에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한농연은 회원들에게 농협 개혁운동의 지침을 제공하고, 각 지역 농축협들의 경영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책의 제1장 '농협,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는 지난 4월 한농연 시군회장 교육을 통해 제시했던 농협 개혁운동의 핵심 전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시군·읍면동회장 및 회원들에게 한농연 농협 개혁운동의 방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장의 '우리 농협 현황조사'란을 잘 이용하면, 각 지역 농축협의 경영 상태와 문제점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장의 조사표는 농축협의 예결산 상세부속서 및 각종 업무지침·규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농협 개혁운동 과제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농민조합원 권리찾기 운동 지침'에는 각 지역의 농축협 개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내기 위한 15대 지침이 담겨 있다. 금리 인하 및 임직원 급여 조정 등의 단기적 과제도 중요하나, 경제사업 활성화나 조합의 투명·건전 운영을 위한 개혁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아울러, 조합장·이감사·대의원 진출 및 작목반 등 각종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농협 경영을 도모해야 한다

는 점도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제4장의 '협동조합 개혁 15대 핵심 과제'에는 작년 전국농민연대의 20대 개혁 요구사항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 농협 개혁 핵심 3대 과제에 대한 농민중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참신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농연의 농협 개혁 자료집은 되도록 지역 농축협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지난 4월 초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 현황 조사에서의 회원 의견 청취 및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실제적인 문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고안하였다.

각 시군·읍면동회장 및 회원들은 이번 자료집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축협 개혁 과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2장에 있는 '우리농협 현황 조사' 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중앙연합회 및 각 도 연합회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각 지역에서 보내준 점검표를 전산 처리하여 그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통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및 각 도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분석표를 각 지역에 보내면, 지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당 농축협의 특수한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어 농협 개혁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읍면회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농협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신명하는 농협 개혁운동의 판을 벌여나가자. **한농연**